

# 원천세분야 ①



글/ 임현식 세무사

## 11.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Q** 교육기자재를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2001.12월에 모 대학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예산집행관계로 2001.12.31일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물품은 2002. 1월이나 2월에 인도할 예정임.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A** 거주자가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한 날이라 험은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말하는 것임

## 1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Q**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

료를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 기재하여 발행하거나 청구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13.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Q** 다세대임대주택과 관련한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A**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같은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

호)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14.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Q** 개인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조합을 통하여 납부하는 아래의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 및 치료비
- 종업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액

**A** 개인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 및 치료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15.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산

**Q** 임차인이 본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동 건물을 본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본인은 이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였는 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당해 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 철거하기로 약정함)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A**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

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16. 화의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Q**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원의 종재로 화의채권을 일부 할인후 조기에 변제받을 경우 할인금액의 대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A**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내에 변제 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것이나,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끝”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고 자란 아이는 똑똑한 사람이 될수 없다.  
겨울에 추위가 심할수록 오는 봄의 나뭇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되지 않고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B. 프랭클린

(미국의 정치가, 사상가, 과학자, 문필가, 1706~60)-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글 / 최용현

헤밍웨이(E.Hemingway)는 「해는 또다시 떠 오른다」「무기여 잘 있거라」「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노인과 바다」등 무수한 명작을 남긴 미국이 낳은 금세기 최고의 문호(文豪)이다. 그의 역작 「노인과 바다」는 풀리처상(1952)과 노벨문학상(1954)을 거푸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란, 중일전쟁 등에 직접 참전하거나 종군기자로 활동했고, 평생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중국, 쿠바 등지를 여행하며 사냥과 낚시, 투우 등을 찾아 보헤미안적인 삶을 살았다. 이러한 체험들은 모두 그의 여러 작품 속에 용해되어 나왔고, 또 그는 강렬하고 악성적인 남아로 전세계에 확고한 이미지와 명성을 남겼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해피엔드를 맛볼 수 없다. 죽음이란 반드시 찾아들어 남는 자는 사랑을 잊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 「오후의 죽음」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의 인생관의 일단(一端)인 바, 그의 소설이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의 주옥같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은 그가 스페인 내란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이리라.

이 작품은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포화 속으로 뛰어든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위와 함께 아름답고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연애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시종일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스토리 구

성과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내면묘사가 뛰어난 것으로 평평이 나 있으며, 영화화된 헤밍웨이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성공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를 통하여 이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 필자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이 영화는 미국 파라마운트사 창립 40주년(1943) 기념작으로 제작되었는데, 헤밍웨이는 이 소설을 집필할 때부터 영화화를 생각하고 그의 친구인 계리 쿠퍼와 잉글랜드 버그만을 주인공으로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원작 소설에 매우 충실한 영화로 알려져 있다.

어느 누구도 하나의 성은 아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온전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한 부분이다. 파도가 밀려와 한 줌의 흙을 씻어가면 씻긴 만큼 유럽의 땅은 줄어든다. 그것은 강(岬)이 줄어듦과 같고, 그대 친구의 아니 그대 자신의 땅이 줄어 듬과 같다.

원작소설의 서문에 인용되어 있는, 영국의 시인 존 던(1572~1631)의 기도문 중 앞부분이다. 이 소설의 주제를 암시해 주는 글이다. 이 영화는 1936년에 발발한 스페인 내란을 배경으로 한 애정영화이다. 줄거리리를 간단히 소개해 본다.

1937년, 스페인에서는 프랑코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공화파들이 인민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미



국의 대학교수인 로버트 조단(게리 쿠퍼 捷)은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공화파에 참여, 협곡 사이의 철교 폭파임무를 맡는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 속에서 활약하고 있던 게릴라들의 도움을 받는다.

여기서 프랑코 정권에 의해 부모가 처형되고 자신은 능욕 당한, 그러나 지극히 청순하고 아름다운 처녀 마리아(잉그릿드 버그만 扮)를 만난다.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마리아의 순진무구한 모습이 조단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다.

산 속에 단둘이 남았을 때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

“난 키스를 할 줄 몰라요. 키스를 할 때 코는 어디로 가죠? 그게 늘 궁금했어요.”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장면이다.

우여곡절 끝에 철교를 폭파하고 탈출을 시도하던 중, 조단이 탄 말이 적의 포탄에 맞아 쓰러지고 그는 다리에 중상을 입고 만다. 그는 탈출을 포기하고 마리아를 보내기로 결심한다. 조단이 자신이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설득해서 보내는 장면, 이 영화의 압권이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는 거야. 당신이 있는 곳엔 어디에나 내가 있어. 자, 가는 거지.

우린 작별인사를 할 필요가 없어. 우린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 자, 어서 빨리…….”

울면서, 절규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떠밀려 마리아는 떠나간다. 끝내 운명은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

“하느님, 마리아를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조단은 가물가물해 가는 의식을 붙잡으며 기관총을 끌어당겨 잡는다. 저 아래에서 추격병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기관총의 방아쇠를 당긴다. 첫 장면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종이 울린다.

사흘 밤과 사흘 낮의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 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절박한 상황과 죽음에의 공포 속에서 전개되는 운명적인 사랑 – 이 빈틈없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영화 전편에 박진감과 긴장감을 더해준다.

조단과 마리아가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은 원작자 해밍웨이와 연출자인 샘 우드가 열 번인가를 반복해서 연기를 하게 했는데도, 그때마다 잉그릿드 버그만이 진짜 눈물을 흘리며 열연했다는 가십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아카데미상은 게릴라 대장의 부인인 여장부 필라(카티나 파시누 扮)가 받았다(여우조연상).

1961년 5월에 게리 쿠퍼가 암으로 죽자, 공교롭게도 두 달 후인 7월에 해밍웨이도 업종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해밍웨이가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의 소설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서두에 인용한 앞부분에 이어지는 뒷부분은 다음과 같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 자신의 감수(減壽)이니, 그 것은 나 또한 인류의 일부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느냐고 묻지 마라. 그것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Any man's death diminishes me, because I am involved in man-kind. And therefore never send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 『최용현』

1954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1981년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문예사조'에서 등단했고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다.  
작품집에는 '삼국지 인물소프트' 와 '아내가  
끓여주는 커피는 싱겁다'가 있으며 현재  
전력전자학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 지원 전력산업 인력양성 교육 실시안내

협회에서는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산업자원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와 전기안전관리분야의 전력산업 현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교육 훈련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

### 가. 교육 목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전력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나. 중점 교육내용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와 적용능력 함양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행정 및 업무수행 능력 함양
- 전력 설비 기술기준 적용 및 검사업무 수행 능력함양
- 전력시설물 공종별 설계도서 이해와 감리실무 능력함양

### 다. 교육대상

- 감리업체에 소속되어 현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시고자 하거나 본 교육 이수를 희망하시는 분
  - 기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에 관심있으신 분
- 라. 교육 과정별 교과목 편성(교과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 교과목	비고
I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제도와 관련기준 해설</li> <li>·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실무 수변전설비의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리 실무</li> <li>· 구내매전설비의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리 실무</li> <li>· 예비전원 설비의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리 실무</li> <li>· 소양교육 · 체육 · 토론회</li> </ul>	40 시간

교육과정	교육 교과목	비고
II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설비 검사업무 해설</li> <li>·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해설</li> <li>· 전기설비보호시스템의 검토 및 점검 실무</li> <li>· 전기사용설비의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리 실무</li> <li>· 국가계약제도 해설</li> <li>· 소양교육 · 체육</li> </ul>	40 시간

### 마. 교육기간 및 교육비

#### ○ 교육기간

- 교육기간은 교육과정당 4박 5일로 수박교육으로 함.

#### ○ 교육비

- 1인당 190,000원/ 실제 교육비는 380,000원 이오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를 지원한 것임

### 바. 교육일시

교육과정	교 육 일 자	
	1 차	2 차
I 과정	11.18 ~ 11.22	11.25 ~ 11.29
II 과정	12.2 ~ 12.6	12.9 ~ 12.13

## 2. 전기안전관리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

### 가. 교육목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자질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전기설비의 안정 운용과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 국가전력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나. 중점 교육내용

- 전기관련 법령 및 전력산업정책의 이해와 업무 능력함양

- 전기설비 및 안전사고 예방기술 능력함양
- 전기안전관리관련 장비 및 새로운 장비 운용 능력함양
- 전기설비 점검 및 검사 의무 능력배양

#### 다. 교육대상

-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중인 분
-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본 교육 이수를 희망하시는 분
- 기타 전기안전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라. 교육과정별 교과목편성

교육과정	교育 교과목	비고
I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관계법령 및 전력산업정책</li> <li>· 자기용수변전설비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용</li> <li>· 전기설비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li> <li>· 전기계측장비 및 안전장구 사용요령</li> <li>· 전기설비 점검 및 검사 기법</li> <li>· 소양교육 · 체육</li> </ul>	40 시간
II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관계법령 및 전력산업정책</li> <li>· 전력계통보호 시스템의 관리 운용실무</li> <li>· 전기설비의 트러블 원인과 예방대책</li> <li>· 전기설비 점검 및 검사기법</li> <li>·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력관리 효율화 운용기법</li> <li>· 소양교육 · 체육</li> </ul>	40 시간

#### 마. 교육기간 및 교육비

##### ○ 교육기간

- 교육기간은 교육과정당 4박 5일로 숙박교육으로 함.

##### ○ 교육비

- 1인당 190,000원/ 실제교육비는 380,000원 이오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를 지원한 것임.

#### 바. 교육일시

교육과정	교육 일자	
	1 차	2 차
I 과정	11.18 ~ 11.22	11.25 ~ 11.29
II 과정	12.2 ~ 12.6	12.9 ~ 12.13

### 3. 교육방법 및 교육접수 인원

#### 가. 교육방법

- Beam-Project, OHP, 슬라이드를 이용한 영상교육

- 자유 토론 및 질의 응답식 자율 교육
- 초청강사 소양교육, 체육시간, Workshop
- 50분 강의에 10분 휴식
- 실습 장비 운용 실무실습

#### 나. 교육 인원

- 1회당 40명 제한(선착순 접수)

### 4. 교육 신청 접수 및 확인

#### 가. 교육 신청 · 접수

- 협회의 소정양식인 교육신청서(안전관리, 감리공통)를 작성하시고

- 중앙회 지정 은행 계좌에 교육비 입금 후 입금증을 신청서와 함께 협회 중앙회 교육훈련팀 (02)888-4473으로 FAX 송부 접수
- 우체국 발행 소액환이나 전신환으로 교육비를 교환하여 교육신청서와 함께 우편봉투에 동봉하여 협회 중앙회 교육훈련팀으로 등기우편 접수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후 협회 지정 은행 계좌에 입금후 협회 중앙회 교육훈련팀으로 전화 통보 접수

#### ○ 교육접수 확인

- 교육신청후 협회 중앙회 교육훈련팀으로 전화 확인

### 5. 기타

- 본 교육은 산업자원부에서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전력기술인 양성교육이므로 노동부지정 교육처럼 고용보험료에서 납부한 교육비의 60% 정도를 별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 본 교육은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환경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교통편은 다소 불편 하더라도 쾌적한 장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 전기안전관리 전문기술인력양성 교육을 이수한 분에게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을 이수한 분에게는 임의 교육입니다만 PQ시 교육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중앙회 교육훈련팀(02) 875-652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끝”

# 교 육 신 정 서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간	2002년 월 일 - 월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				
	전화번호	( ) -	휴대통신			
근무처	직장명			근무부서		
	직장주소	□□□-□□□				
	전화번호	( ) -	FAX			
교육비 납부방법 (V 표시)	<input type="checkbox"/> 운행ON-LINE입금(송금자명: )		<input type="checkbox"/> 소액환·우편환	<input type="checkbox"/> 방문납부		

위와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2002년 월 일

위 교육신청자

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규하

접수번호	이수번호	영수증번호	영수금액	영수자확인	수납필인
					인

## ◆ 교육훈련과정 ◆

## ◆ 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부방법 ◆

전기안전 관리자교육	전기안전 I	▶ ① 교육비를 접수처 해당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송금전표와 교육신청서를 접수처로 FAX 전송 ② 교육신청서와 교육비(우체국 소액환)를 동봉하여 해당 접수처로 등기 우송 ③ 해당 접수처(중앙회·지회)에 직접 방문신청 및 납부
	전기안전 II	▶ 교육신청은 중앙회 및 지회에서 연중 선착순 접수하며, FAX 또는 우편으로 교육을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전화로 접수확인 바랍니다.
	특별교육	▶ 납부한 교육비는 당해 교육이 개시된 이후에는 연기 또는 환불이 되지 아니하므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7일전까지 그 사유를 FAX로 통보바랍니다. ▶ 교육실시일정은 협회사정과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리전문기술교육		
설계기술교육		
시공기술교육		

## ◆ 교육접수처별 은행계좌[예금주명:한국전력기술인협회]·FAX·전화번호 ◆

접수처	은행명	부ran기한	FAX	전화번호	접수처	은행명	부ran기한	FAX	전화번호
중앙회	주택은행	419837-01-000946	(02) 888-4473	(02) 875-6525	경기지회	농 협	132-17-000450	(031)443-1068	(031)443-1064
					경기북지회	기업은행	112-054625-04-019	(031)876-6526	(031)876-6525
서울남동지회	하나은행	220-910001-37104	(02) 425-4471	(02) 425-4417	강원지회	농 협	173018-51-000524	(033)652-6515	(033)652-6513
서울남서지회	한빛은행	473-04-100796	(02) 677-6312	(02)2633-6312	충남지회	농 협	467-01-183565	(041)551-7771	(041)551-7774
서울북동지회	국민은행	741-25-0001-309	(02) 990-8661	(02) 990-8660	충북지회	주택은행	704301-01-000047	(043)273-6425	(043)262-8584
서울북서지회	외환은행	025-22-01484-5	(02)2269-6315	(02)2271-1874	전북지회	전북은행	014-02-0023643	(063)272-4922	(063)252-3287
부산지회	부산은행	031-13-000333-2	(051)636-5644	(051)636-5665	울산지회	부산은행	111-13-000774-7	(052)265-9686	(052)271-0770
대구지회	농 협	150013-51-016987	(053)743-0147	(053)742-4014	경남지회	경남은행	509-07-0157478	(055)283-7333	(055)283-6842
인천지회	한빛은행	304-04-102000	(032)502-0607	(032)525-0075	경북도지회	농 협	743-01-321851	(054)273-3069	(054)273-5147
대전지회	하나은행	644-261719-00105	(042)673-8203	(042)626-4700	경북서지회	농 협	778-17-000833	(054)453-6616	(054)453-6316
광주전남지회	농 협	284-01-000561	(062)374-7397	(062)374-7398	제주지회	제주은행	03-01-071871	(064)744-4454	(064)747-6230